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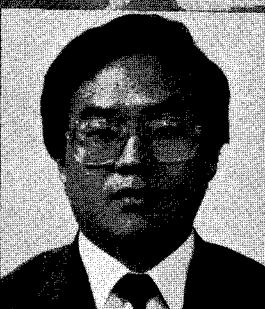
# 90년도 상반기 사료시장 전망

**7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한국은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이에 따라 '풍족한 생활'의 터전이 마련되었다.

특히 식생활 부분의 양적, 질적인 확대가 두드러졌는데 국민경제의 팽창은 소비패턴의 변화를 야기해 식생활 역시 전통적인 양태에서 진일보하여 육류소비의 점진적인 증가, 그리고 이로 인한 사료산업의 발전이란 필연적인 함수 관계를 도출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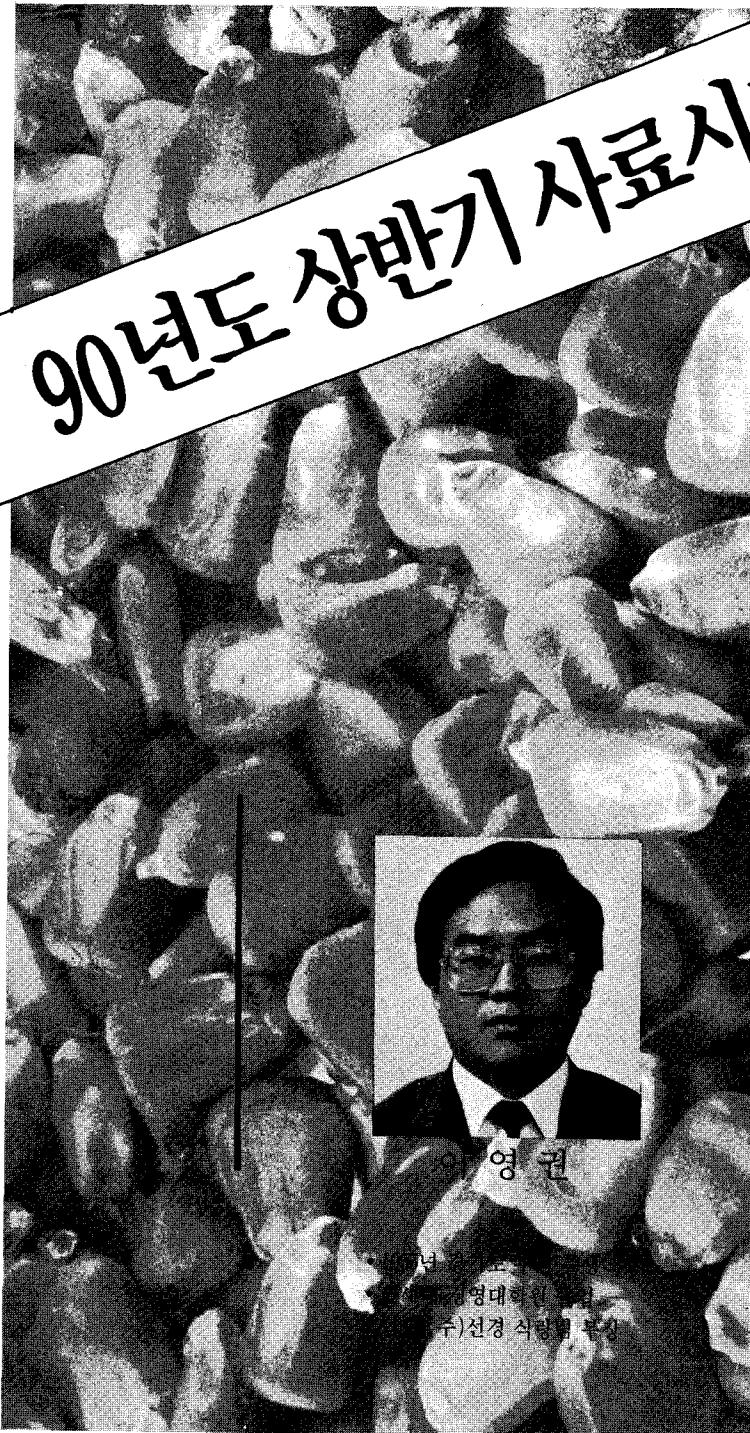
그리고 대부분의 사료원료를 해외에서 수입으로 조달해야 하는 국내 사료업계의 입장에서는 해외의 주요 곡물생산, 수출국의 작황, 정부시책, 그리고 총체적인 개념에서의 국제무역 상황까지도 이미 '강건너 불'이 아닌, 그래서 이에 대해 면밀한 주의를 요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러나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전종별로 일일이 분석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 본고에서는 각종 사료곡물가를 결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옥수수, 특히 미국산 옥수수를 중심으로 올해의 작황 및 내년 상반기까지의 가격 동향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영권

연세대학교  
경대학원  
(주)전경 식량제 분장



## 〈미산 옥수수의 가격 동향〉

미국은 전세계 옥수수 생산의 40%를 차지하며 또한 전세계 옥수수 수출량의 70%가 미국에 의해 수출된다. 따라서 세계 옥수수 시장 가격은 미국산 옥수수 가격의 등락에 의해 지배되므로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기본적 요인 즉, 생산과 소비의 양면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미국산 옥수수는 CBT (CHICAGO BOARD OF TRADE)라는 선물시장(先物市場)에서 거래되며 여기서 형성된 가격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올해 미국산 옥수수의 수급상황의 변화와 CBT 옥수수 시장의 가격동향을 연계시켜 보는 것이 향후 옥수수 가격의 변화추이, 더 나아가서 국제 사료곡물 시세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선 지난 8월 한 달 동안 CBT 옥수수 가격의 변화를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 1. 동향 : 수요 공급을 중심으로

지난 8월 한 달 동안 시카고의 옥수수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올해의 수확량에 대한 엉갈리는 예상과 이에 대한 미농무성의 발표였다.

하절기 동안 계속해서 양호한 기후가 전개되면서 올해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이 76억 BUSHEL (약 1억9,300만톤)까지 증가하지 않나 하는 기대감으로 인해 시카

고 12월물의 가격은 부셸당 220 CENT 까지 떨어졌으나 정작 미농무성이 8월 10일 올해의 생산량을 73억4,800만 BUSHEL (약 1억8,660만톤)로 발표하자 가격은 반등하여 한때 240 CENT / BUSHEL 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생산량 전망의 근거를 살펴보면 올해 미국의 옥수수 씨부면적은 약 7,200~7,300만 ACRE이며 이중 대체로 90% 가 수확된다고 가정할 때 수확면적은 약 6,500만 ACRE 가 된다. 그 다음이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되는데 지금까지의 기후 전개, 생육 조건 등을 감안할 때 1 ACRE 당 평균

문가들은 우려하는 냉해의 위협이 적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한 생산량 역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요의 측면에서는 8월 중에 기대되던 소련 및 아시아 국가의 구매가 현실화되지 못하고 특히 할 만한 대량구매도 없게 되자 240c / BU 까지 상승했던 CBT 의 12월물 옥수수 가격은 다시 230c / BU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또한 국내의 사료용으로 소비될 옥수수의 양도 지난 3~5월 중에 8억4,800만 BU 이 소비된 것 (전년동기 : 9억4,000만 BU )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 예상되고 있는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의 수급상황이  
상당히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며  
미산 옥수수의 가격을 상승시킬만한  
부정적인 외부요인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거나  
또는 소멸되어 가고 있다.**

112~113 BUSHEL 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므로 올해의 생산량은 줄잡아 73억 BUSHEL (약 1억8,500만톤)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이 수치는 8월 현재의 작황을 기준으로 나온 통계이므로 앞으로 닥쳐올지 모르는 냉해 및 병충해 그리고 수확기의 비 등에 의해 이보다 더 적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나 대체로 기상 전

'88/'89년의 사료용 소비량인 40억 BUSHEL 을 다 소비하는데는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올 '89/'90년도 중 목표로 됐던 42억 BUSHEL 의 사료용 소비 역시 그 달성을 어려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외에도 미국산 옥수수의 수출량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데 그 일례로 소련의 경우를 들어보면 지난

해 소련은 모두 1,900만톤의 옥수수를 외국에서 수입하였고 그 중 미국산이 1,660만톤이나 되었으나 '89/'90년도 중에는 총 수입량이 1,720만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이중 미국산에의 의존도 1,100~1,200만톤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USDA(미농무성)가 기대하는 20억 BUSHEL(약 5,080만톤)의 수출은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더구나 미국산 옥수수의 대외수출 경쟁력에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Argentine 산인데 <표 2>에서 보듯이 미 농무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극심한 가뭄의 여파로 470만톤 생산, 120만톤 수출에 그쳤던 Argentine 이 그 후 유증에서 탈피하여 예년 수준을 회복하게 되면서 올해에는 850여만 톤 생산, 이 중에서 대략 400여만 톤 정도를 수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미국산 옥수수의 수출에 하나의 강력한 견제역으로 등장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정을 도출할 수 있겠다.

즉, 국내 소비의 감소와 함께 수출 수요의 감소로 인한 총 수요의 감소 그리고 이에 따라 현재 예상되는 이월재고량(16억7,900만 BU : 표1- 참조)의 필연적 증가가 그것인데 기본적인 경제이론 즉 공급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수요의 감소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

을 가정한다면 이러한 점은 장기적으로 시카고 시장에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서 잠정적이지만 확고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기타국들의 수급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 옥수수의 교역에 참가하는 나라로는 앞서 거론한 Argentine 과 태국, EC, 그리고 SOUTH AFRICA 를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EC는 2,500~2,600만톤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부분이 EC 역내에서 소비되기

<표 1> 1989/90 US SUPPLY / DEMAND

단위 : MIL BU

( )안은 8/10일자 통계 수치

	CORN
총 공급	9179(9181)
기초재고	1855(1830)
생 산	7321(7348)
수 입	3 (3)
총 수요	7500(7500)
사 료	4200(4200)
식량/산업/종자	1300(1300)
수 출	2000(2000)
이월재고	1679(1681)

<표 2> 1989/90 WORLD SUPPLY/DEMAND

단위 : MIL MT, ( )안은 88/89년

A/CORN	기초재고	생 산	수 출	수 입
THAI	0.20(0.21)	3.80( 4.20)	0.70(1.56)	0 (0)
AGRENT	0.13(0.39)	8.50( 4.70)	4.00(1.20)	0 (0)
S.AFRIC	1.74(0.84)	8.00(11.70)	2.00(5.20)	0 (0)
EC	5.04(4.14)	25.35(28.56)	7.89(8.28)	10.07(10.10)
JAPAN	1.24(1.34)	0 ( 0)	0 (0)	16.40(16.00)
USSR	NA(NA)	16.00(16.03)	0 (0)	17.20(19.00)

때문에 국제 시세에 큰 영향을 못 미치므로 일단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해도 무방할 듯 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지난 '88/'89년도 중에는 1,100만톤 생산, 이중 약 500여만톤의 수출이 기대되어 미산 옥수수의 대외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나 올해는 대략 800만 톤 생산에 수출도 200만톤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대세를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으로 이해된다.

금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15만 톤 정도 구매를 하였으나 미산에 비해 가격이 1톤당 5~7달러 정도 낮게 형성되었으며 백색 옥수수가 전분수율이 노란 옥수수에 비해 훨씬 높고 이로 인해 일본의 경우 상당한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까지 이를 선호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호도가 한국에서는 열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 사료업계에서는 이 역시 큰 변수로 작용하지는 못할 것 같다.

그리고 태국산의 경우는 지난

87년에는 작황 악화로, '88년에는 태국내 소비패턴의 변화로 인해 대외수출 여력이 상당량 감소하였으며 올 '89/'90년도에도 생산부진 및 국내 소비의 증가로 인해 수출량 역시 소량(약 70만톤)에 불과하고 그나마 가격도 미국산에 비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심지어 1톤당 10~20달러 정도 높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역시 미국산에 비해 그 선호도가 크게 뒤진다고 보겠다.

### 〈'90년 상반기의 전망〉

지금까지 미국의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가격변화와 미국산 옥수수의 수급상황을 접목시켜 그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기타 주요 생산국의 수급상황과 그 여파도 진단해 보았는데 이와 같은 제한된 여건을 토대로 올 연말과 내년 초의 사료곡물의 사장추이를 정확히 전망한다는 것에 무리가 따름

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왜냐하면 전술한 기본적인 요인들 이외에도 예를 들면 달러가, 미국의 농업정책, 주요 수입국의 경제정책 등 수없이 많은 요인들이 시장가격을 형성하는데 음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중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요건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지 지금 시점에서 가능한 것은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의 수급상황이 상당히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며 미산 옥수수의 가격을 상승시킬만한 부정적인 외부 요인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거나 또는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점 등이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료원료 가격의 안정세를 도모하게 되지 않나 하는 것과 이에 연동시켜



〈표 3〉 주요 사료원료 가격동향

(단위 : USD/MT, CNF기준)

품 목		원 산 지	9월 현재	90상반기예상
곡 류	옥 수 수	미 국	125	123~126
	수 수	중 국	123	
	사료용 소맥	EC	152	145~150
	호 밀	CANADA	118	
강 피 류	소 맥 피	ARGENTINE	111	109~112
	GSP	미 국	85	84~86
	타피오카	THAI	48	55
식물성 박류	대 두 박	중 국	215	220~225
	채 종 박	INDIA	100	103~105

〈표3〉와 같은 기타 곡물가격의 예상을 할 수 있는 정도이다.

물론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예년의 경우처럼 소련 등의 대량 구매가 일어나 가격 상승을 유발 할 소지는 다분하나 이는 단기적 현상에 그칠 것이 예상되고 수확기에 특별한 기상 이변이 없는 한 앞서한 전망은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